# 호남 추석 민심 승자는 누구…김명수 변수

### 정부·여당, 조속 인준 촉구
### 국민의당, 부결 땐 책임론
### 사법부 공백·선거 영향 부담
### 추 대표 사과 요구 명분 찾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추석 연휴 호남 민심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개혁·진보 성향의 호남 민심은 '사법 개혁이 시대적 적폐를 해소할 첫 단추'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마저 뚜렷한 명분 없이 야권의 반대로 국회 인준이 부결될 경우, 추석 연휴 호남 민심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전망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형성된 호남 민심이 여권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집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국민의당의 경쟁 구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마저 부결된다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책임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여권은 몸을 숙이고 국민의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에 나서 줄 것을 읍소하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인준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회와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뉴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면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에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국민의당을 향했던 비판의 날을 거두고 몸을 낮추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읍소'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호남 민심에 반할 것이냐'는 정치적 압박도 상당하다. 다만 국민의당을 '땡깡, 골목대장'으로 폄하한 추미애 대표의 돌출 발언이 걸림돌이다. 추 대표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국민의당과의 감정 대립 양상이 풀리지 않아 좀처럼 출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삼권분립·민주주의 원칙 준수 여부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 동의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출구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까지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린 것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일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자유투표로 방치하다가 부결된다면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국민의당으로선 인사청문 국면에서 스텝이 꼬이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 이번 국면을 잘 넘기지 못한다면 정기국회에서의 분전도 별다른 약효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추 대표의 사과 등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리도 명분도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추 대표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원식 원내대표 등 책임 있는 지도부 인사들의 사과 등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파동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도 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실타래를 푸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명수 살리느냐 마느냐…전운 고조

### 야권 부정적 입장 고수…박성진은 자진 사퇴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번 주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입법전쟁이 시작돼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여야 간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여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향후 정국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4일까지)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국을 참작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우선,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야당 주도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며 협조해 것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며 감정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념적인 편향성을 들어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을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바른정당 전대 11월6일 유력

### 추석 전 선관위 출범 속도

바른정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추석 이전에 공식적으로 띄우기로 한 것이다. 올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되는 만큼 일찌감치 선관위를 구성해 이른바 '추석 민심 밥상'에 바른정당의 차기 지도부 이슈가 중심에 서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바른정당 정문헌 사무총장은 17일 "추석 전에 선관위를 띄우고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무게감 있는 선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 이미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대 날짜는 '11월6일'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초 개최에 무게가 쏠리는 것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월말에 마무리되는 데다 11월 중순 이후는 사실상 '예산국회'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정 사무총장은 "여론조사를 주말에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요일인 6일과 13일 안이 가장 유력하다"며 "18일 열리는 최고위원에서 '6일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컨펌(확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은 내주 안으로 전당대회를 총괄 관리할 선관위원장을 낙점하겠다는 생각이다. 다선의 원내외 인사 가운데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는 인물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데려오겠다는 생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시도당위원장 간담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들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지방선거 공천 시도당 권한 강화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원칙을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시도당을 대폭 정비하고 공천 권한 또한 시도당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간담회에서 제 2창당위원회 산하에 각 시도당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를 설치,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공천원칙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연말까지 253개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는 동시에 지역위원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사이에 인적교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분권형 참여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선거 공천권한을 시도당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일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와 풀뿌리 정당조직 기반 형성, 정당의 정책지능 고도화를 목표로 한 17개 시도당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권한을 가능하면 지방 (시도)당으로 이양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공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위원회의 상향식 공천 및 경선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고소득자 증세·방송법…이주부터 입법전쟁

여야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서막을 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야당은 여권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놨다며 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입법전쟁이 시작되면 여야 간에 충돌이 불가피한 대표적 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이 꼽힌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쟁점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로 내세운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규정을 바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야 간 충돌지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k-land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중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임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접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454,000,000**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유탕제인근 보전관리지구
임야 90000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522,000,000**

근 린 시 설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미륵동마을인근 사찰
토지 1575평 건물 183평 **감정가 1,200,000,000 최저가 673,000,000**
▶동구 충장로1가 스포츠웨어매장 지하1층-지상3층건물
토지 32평 건물 97평 **감정가 1,330,000,000 최저가 1,330,000,000**
▶남구 주월동 재석초인근 4층건물
토지 71평 건물 180평 **감정가 453,000,000 최저가 453,000,000**

공 장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336,000,000**

일 반 물 건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일 반 물 건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륵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륵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접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